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4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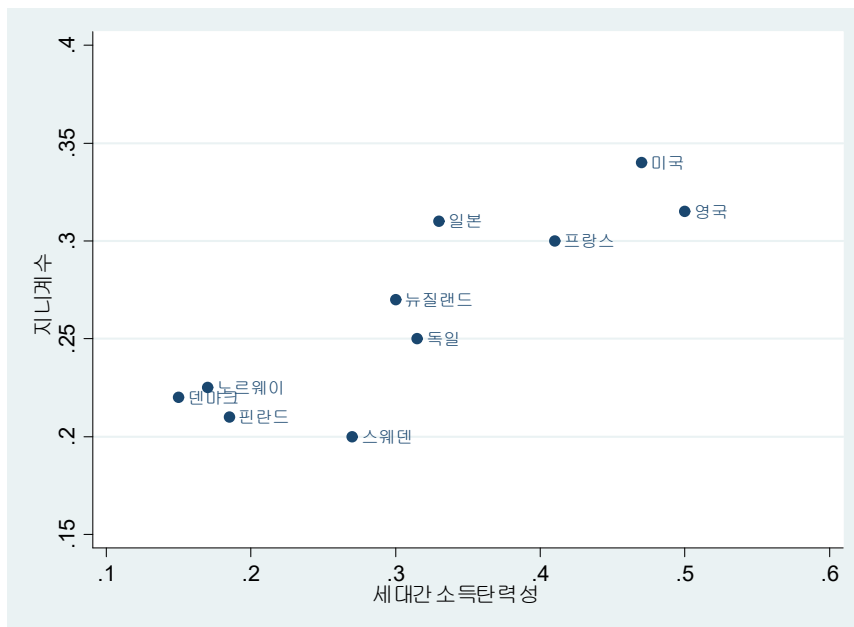
[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 [나][다]가 보여주는 자료를 설명하고, [가]와 [라]를 근거로 [마]에 서술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쓰시오.

제시문

[가] 개인의 삶은 사회 계층 구조의 영향을 받지만, 사회 계층 구조 내 개인의 위치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는 사회 계층 구조의 더 높은 계층에 소속되기 위한 노력,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사회의 계층 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사회 이동은 폐쇄적 계층 구조를 보이는 사회보다 개방적 계층 구조를 보이는 사회에서, 농촌 사회보다 도시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구성원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사회 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 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사회 이동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낮아지고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 미래엔 사회 문화 4장

[나] 그림 1 소득불평등도와 세대 간 소득 탄력성



- 출처: 알란 크루거, 미국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결과, 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회, 2012.

위 그림은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와 세대간 소득 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Y축의 변수는 각 국가의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X축의 변수 “세대간 소득 탄력성”은 한 가족 내의 아버지의 소득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그 아들의 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된 값으로 한 가족 내 아버지와 아들의 임금이 얼마나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분포 상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그 아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아버지의 소득 수준으로부터 아들의 소득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미국 대학 신입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

	사회경제적 지위 4분위 (퍼센티지)				합
	하위 25%	하위25-50 %	상위25-50 %	상위 25%	
레벨 1 (최상위)	3	6	17	74	100
레벨 2 (상위)	7	18	29	46	100
레벨 3 (경쟁적인 대학)	10	19	36	35	100
레벨 4 (경쟁적이지 않은 대학)	16	21	28	35	100
지역 전문대	21	30	27	22	100

레벨 1~4는 입학 성적(SAT), 신입생들의 고교 내신 등급, 신입생들의 성적,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배론(Barron)이 대학의 경쟁 정도를 최상위권부터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 출처: 앤소니 카네베일 스테픈 로즈,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민족성, 그리고 선별적 대학 입학, 리차드 칼렌버그, 미국의 이용되지 않은 자원: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표 3.1.

(Richard Kahlenberg, America's Untapped Resource: Low-Incom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라] 1960년대 이후 풍미했던 능력주의라는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 능력주의의 가장 눈부신 성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글픈 아이러니다. 모든 통치 질서처럼, 능력주의는 그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 헌신하는 이념이다. 훗날 역사에서 고통의 시대로 기록될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하다고 주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주의라는 엘리트 양성과정의 산물이다. 사회에서 가장 명석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야심찬 구성원들을 뽑아 지도자로 키운다고 하는 기관들이 배출한 오바마 같은 이들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약사와 임시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벤 버냉키, 미주리 주의 목사와 농사꾼 사이에서 나고 자란 켄 레이, ...(중략)... 브루클린 임대주택단지에서 자랐으나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가 된 로이드 블랭크페인, 버밍햄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난 곤돌리자 라이스가 그 산물이다...(중략)...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체사회에 불평등을 용인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 계층을 양산하고 말았다. 제도의 연속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권위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그 엘리트 계층이다. 개별적인 제도의 실패-메이저리그, 엔론 사태, 이라크 전쟁-에는 특정한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 있는 공통적인 원인은 엘리트의 불법행위와 부패이다... (중략)... 시대의 대변혁을 가져온

사회운동이 그토록 평등을 부르짖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후 드러난 것은 예전보다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뿌리 깊은 사회질서였다.

- 똑똑함의 숭배, 크리스토퍼 헤이즈

[마] 한국사회가 매우 역동적이고도 신속하게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교육에 대한 인적투자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금 저성장기를 맞아 대학을 정점으로 서열화한 교육체제 아래서 돌아오른 교육열은 사회계층과 계급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진이 사회이동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한국사회는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사회계층과 계급은 공고화하고, 강화된 사회계층·계급 격차는 교육격차를 확대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낮추는 악순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다. 직업계층의 세습도 확인된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중략)... 특히 정보화세대로 접어들면서 현재 본인 계층이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확률이 확연히 높아졌다... (중략)... 학력과 사회계층이 낮은 부모에게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아졌다. 청년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거나, 부모의 지원이나 후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 연합뉴스 2016.1. 31 재구성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사회 현상 중 하나인 부의 불평등 현상과 사회 이동을 통계자료와 지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상이한 지문들이 주장하는 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독해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타당한 관점을 논리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문항해설

제시문 [가]의 ‘사회 이동’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적 위치가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제시문 [나]는 세대간 계층이동을 세대간 소득탄력성이라는 지표로, 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라는 지표로 수치화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간 지니계수와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데, 이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대간 계층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의 통계 자료는 레벨이 높은 대학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사회에서의 고등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미국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트가 되어 지배 계층이 되는 능력주의로 지도자가 된 사례들을 나열하는 한편, 능력주의의 결과로 선출된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꼭 성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 이동’이 어렵워졌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하는 신문기사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이동의 개념을 [나]를 통하여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이동의 개념을 [다]를 통하여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도표와 표로 나타난 통계자료를 사회이동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맞게 해석하고 있는가?
- 능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라] 지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사회이동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 상황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제시문들의 요지를 모두 통합하면서 타당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 통계의 해석과 관련: 제시문 [나]에서 세대간 소득 탄력성이 높을수록 불평등정도의 유지 가능성이 높음 (낮은 계층이동).
- 통계의 해석과 관련: 제시문 [다]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신입생이 많다는 점은 낮은 계층이동을 의미함
- 제시문 [라]에서 능력주의 사회 (즉 계층이동이 잘 일어난 예)라고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논지를 찾아내는가?
- 제시문 [마]에서 서술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앞에 제시된 제시문들 ([가]~[라], 특히 [라])의 요지를 통합, 연결하여 서술하는가?

4. 예시답안

제시문 [가]의 ‘사회 이동’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적 위치가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나]에서는 세대간 계층이동을 세대간 소득탄력성이라는 지표로, 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라는 지표로 수치화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간 지니계수와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데, 이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대간 계층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의 통계 자료는 레벨이 높은 대학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사회에서의 고등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교육의 기회가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족에게는 최상위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나]의 그림에서 미국의 상황이 세대간 소득 탄력성이 더욱 높아지거나 지니계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문 [라]는 미국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트가 되어 지배 계층이 되는 능력주의로 지도자가 된 사례들을 나열하는 한편, 능력주의의 결과로 선출된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꼭 성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 이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제시문 [가]의 주장처럼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개방성은 사회발전의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라]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능력에 따라 계층이동이 활발히 되는 사회, 능력있는 사람이 엘리트가 되고 지배계층이 되는 사회가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예전보다 개방적인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로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